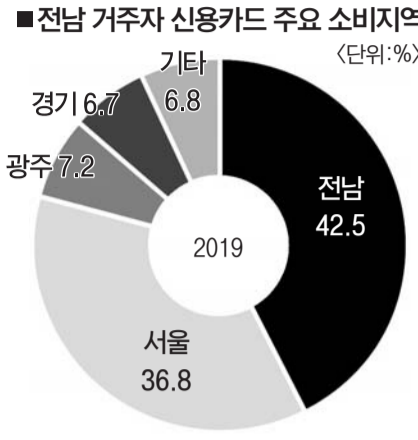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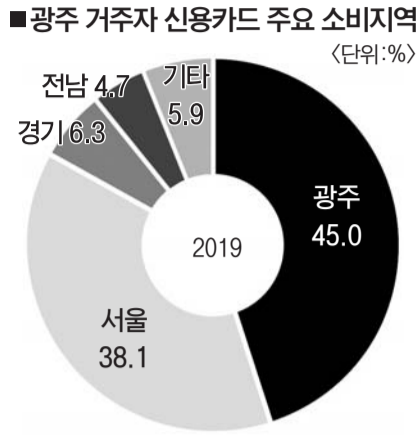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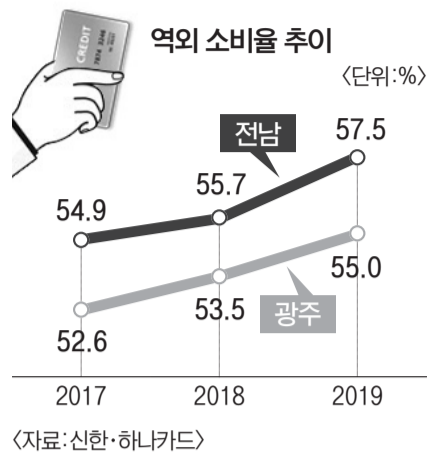


광주·전남 역외소비 씹씹이 커졌다

역외소비 광주 55%·전남 57.5% 소비유입률 30% 밑에서 정체 광주·전남 소비 상당분 서울 유출 광주 숙박·전남 의료 소비 최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 절반 이상 이 다른 사·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역외소비율은 해마다 오르는 반면 다른 광역시·도로부터의 소비 유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가 3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민간소비의 특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김영빈 한은 광주전남본부 과장과 박지섭 목표본부 과장, 박선욱 과장은 2017~2019년 신한카드·하나카드 개별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 지역별·업종별 소비비율과 구성비를 산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역외소비율은 광주 55%·전남 57.5%로 전국 상위권에 들었다. 지역민 소비 절반 이상이 역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남 역외소비율은 인천(61.3%), 경북(58.7%)에 이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사·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이어 울산(57.1%), 충남(57.1%), 경남(56.9%), 대구(55.3%) 순으로 높았고 광주(55%)는 8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역외에서 돈을 쓰고 오는 비율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전남 역외소비율은 2017년 54.9%, 2018년 55.7%, 2019년 57.5%로 증가하며 60%대를 바라보고 있다.

광주도 2017년 52.6%, 2018년 53.5%, 2019년 55%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다른 지역 거주민이 광주·전남에서 돈을 쓰는 비중은 2%도 채 되지 않았다. 전체 역외소비 중 광주는 1.0%, 전남은 0.8%만을 차지했다. 역외소비에서 서울이 6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기(14.6%)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으로 들어온 소비유입률은 올해 30% 밑에서 정체했다. 지난해 소비유입률은 광주 27.3%·전남 27.6%로, 각각 전년에 비해 2.6%포인트, 0.7%포인트 올랐다.

전국에서 소비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6.3%)였고, 대전(35.3%), 강원(34.3%), 충남(34%), 경기(33.7%) 등이 30%를 넘겼다.

지역민들은 거주지 외에 상당 부분 서울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거주지에서 돈을 쓴 시도민 비중은 광주 45%·전남 42.5%이었다. 이외 최대 소비지는 서울로, 광주 38.1%·전남 36.8%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 가게에서 돈을 썼다. 광주시민 4.7%는 전남에서, 전남도민 7.2%는 광주에서 소비했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서울 소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은 거주지에서 소비해도

구매 내역이 본점 소재지인 서울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역외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여행, 사무통신기기, 자동차, 유통, 보험 업종이 주를 이뤘다.

한은 측은 본점 소재지로 집계되는 소비비중이 높지 않은 업종을 살펴보니 광주는 '농업용품'과 '숙박', 전남은 '의료기관'에 대한 역외소비가 많았다.

광주 시민의 농업용품 역외소비는 전국 평균보다 43.9%포인트나 높았고, 여행은 24.8%포인트, 보험 17.4%포인트, 사무통신기기 16.9%포인트, 숙박 16.2%포인트, 유통업 12.2%포인트, 자동차 11.4%포인트, 가전 4.5%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음식료품(-1.3%P), 의료기관(-3.8%P), 의복(-8%P) 업종은 전국 평균보다 역외소비율이 낮았다.

전남 역외소비율은 여행 업종이 전국 평균보다 24.9%포인트 높고, 사무통신기기(22.1%P), 의료기관(18.9%P), 자동차(18.6%P), 보험(17.4%P), 유통업(15.2%P), 가전(14.1%P) 등 역외소비가 많았다.

문제는 광주·전남이 문화관광도시를 내 걸었음에도 숙박·요식업에의 소비 유입이

극히 적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숙박·요식업 역외소비 비중은 각각 1.4%, 3%에 불과했다. 숙박·요식업 역외소비는 서울(31.8%)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강원(6.6%), 인천(5.2%), 부산·충남(각 4.6%), 제주(4.1%)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빈 과장은 "지역 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은 광주는 66.6%, 전남은 36.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 비중의 증가 등으로 지역 내 소비는 줄고 역외소비는 늘어나는 소비유출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광 경쟁력을 키우고 전남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내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비접촉식 지급결제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국 평균에 비해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51.04 (+1.67)
- ↑ 금리 (국고채 3년) 0.799 (+0.003)
- ↑ 코스닥 827.57 (+12.27)
- ↑ 환율 (USD) 1193.40 (+2.10)

새천년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집입

새천년종합건설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상위 100위권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천년종합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66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단계나 오른 전국 99위를 기록해 100위권에 진입했다.

새천년종합건설의 시공평가능력 순위가 크게 오른 것에는 지난해 토목과 주택 분야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냈던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재 새천년종합건설 회장은 이에 대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아시아나 재실사 불가... 현산 진정성 의심"

산업은행, 인수 무산 불가피

산업은행은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가 과도하다고 일축하며 인수 주체인 현산 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산이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채권단의 답이었다.

최 부행장은 "금호산업에 따르면 현산이 인수·합병(M&A) 과정 동안 7주간 충분한 실사와 6개월 인수 활동에도 통상적인 M&A 절차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M&A를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경우는 처음"이라

'전남 글로벌게임센터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10일까지 접수... 무료 교육 진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글로벌게임센터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생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오메네프가 주관한다. 교육 기간은 8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이다.

교육은 '초급 게임 개발자 과정' 등 기초 실무교육과 기업체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거주민 또는 거주 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료생에게는 게임 관련 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 가을 학기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신세계는 오는 9월7일까지 9층 접수데스크에서 '아카데미 가을 학기' 신규 회원모집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 강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50~70% 수준만 운영할 예정이다. 12개월 미만과 임신부 강좌는 이번 학기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대표 강연으로는 흥인혜 작가의 '열기 있는 삶의 대하여', 최대호 시인 '완벽하지 않은 나에게', 안상현 작가 '다만 행복 해지길 바랄 뿐' 등이 있다.

이외 랜선여행을 주제로 한 '나홀로 떠난 스페인 산타아고 순례길'과 부동산 자산관리, 수채화, 공예, 외국어 강좌 등이 있다.



3일 광주신세계 아카데미 직원들이 가을 학기 수강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